

전북대, LINC 3.0 사업 선정... 330억 지원

'기술혁신선도형 사업' 선정... 지역협업센터 구축 통해 기업지원 고도화 체계 마련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교육부 주관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 사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1단계 사업 선정 이후 2단계와 3단계 사업까지 모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LINC 3.0 사업은 1·2단계 LINC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학 산학협력 종합 지원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4월

28일 LINC 3.0 사업 선정 대학으로 기술혁신선도형 13개교, 수요맞춤형 53개교, 협력기반구축형 10개교를 발표했다.

이에 전북대는 일반대학 LINC 3.0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기술혁신선도형'에 선정, 6년간 최대 330억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북대는 대학의 기술사업화 및 브랜드 창출,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는 글로벌·신기술 인재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 혁신 모형 개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이미 협약을 맺은 하버드의대(병원)와 MIT 미디어랩, A랩, 로보틱스랩 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혁신성장산업과 대학의 특화분야를 반영한 5개(네제로농생명, 친환경미래모빌리티, 탄소·융복합소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지역협업센터(ICC)를 구축해 기업지원 고도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교원업적평가의 지속적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전임교원의

실질적 참여도 확대한다.

송철규 LINC 3.0 사업단장(공과대학장)은 "우리 대학은 지난 10년간 LINC 1·2단계 사업 수행을 통해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특히, 이번 3단계에서는 5-ICC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업단은 대학 혁신의 핵심이 돼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선정

8년 간 150억원 지원... 4차 산업혁명 이끌 SW 핵심인재 양성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이하 SW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SW중심으로 대학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AI 등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SW 전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SW중심대학 사업은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으로 나눠 총 9개 대학(일반 7개, 특화 2개)이 선정, 전북대는 호남권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정을 통해 전북대는 8년 동안 총 150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SW 핵심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용 등을 위한 교육과정 수립에 나서는 등 1단계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SW융합교육센터를 통해 스마트팜학과 디지털농업AI 융합 트랙 신설 등 11건의 융합교육과정을 신설 또는 개편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산업체 수요 기반 SW AI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신기술/첨단학과로 융합전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과 창출 및 사업 고도화에 나선다.

3단계에서는 SW중심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에 확산하는 한편, SW, AI 중심의 다학제 간 학문 융합을 통한 데이터 르네상스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교육부 LINC 3.0 선정... 6년간 총 252억원 지원

수요맞춤성장형 사업 선정... '바이오헬스·수소에너지·스마트관광' 산업 이끌어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교육부의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수요맞춤성장형)에 선정, 6년간 총 252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LINC 3.0 사업은 대학별 특성과 역량에 따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반대 3개 유형(75개)과 전문대 2개 유형(59개)으로 구분, 올해 407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에 따르면 우석대학교는 산업계와 미래사회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POST-WOORI 추진 전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학의 특화 분야인 바이오헬스·수소에너지·스마트관광'의 ICC(Industry Coupled Collaboration Center)를 만들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관련 분야의 새로운 융합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LINC 3.0 사업단(단장 이종석)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차세대 핵심 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R&D 사업화 집중 지원 ▲공유 협업 생태계 기반 현장중심 교육 ▲산업 밸류체인별 전주기 맞춤형 패키지 지원 ▲혁신적 교육방법과 융·복합 교육 실현 ▲시장 선점형 산학연 협업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천현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 우리 대학교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친화형

인재양성과 신산업 기업가치 확대를 위한 매트릭스 개발 및 운영 등 일년 통천의 자세로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2012년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LINC 사업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개방형 산학협력 선도모델인 WOORI의 고도화를 위한 WE-ART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2020년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은성 기자

도내 중학생에 직업계고 진로 체험 기회 제공

전북교육청, 중학생 직업체험교실 운영... 직업계고 30교 활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특성화고·미이스터고 실습실을 중학생 직업체험 교실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학생의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고·미이스터고의 올바른 이해로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중학생 직업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도내 직업계고 30개교로

운영과정은 총 115과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에서는 오는 10일까지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직업계고에서는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업계고 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도교육청에서 사전 배부한 '중학생 직업체험 교실 사용설명서' 또는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탑재된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특히 '중학생 직업체험 교실 사용설명서'는 각 학교별 학과 소개와 함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 일선 중학교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전주산업정보고의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회계 원리', 전주생명과학고의 '천연색소 뽑아 만들기', 완산여고의 '스튜어디스 실무체험', 군산기계고의 '우드

트레이 만들기', 학산고의 '나도 슈즈 디자이너', 전북하이테크고의 '드론 축구' 등이 있다.

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사는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중학생 직업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체험 전 실습실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후 체험교실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5월 학부모교육 다채

기후위기 환경생태교육·메타버스타고 우리아이 진로탐색 등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생태교육, 메타버스 타고 우리아이 진로탐색, 부모성장 달빛학교,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놀이밥0+ 학부모 이해교육 등 5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도내 학부모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

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이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실시된다.

또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녀교육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베타버스타고 우리아이 진로탐색'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5차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금 일하는 엄마표 미래교육' 저자인 이지은 부모교육 전문가와는 ▲4차산업혁명과 미래일자리 ▲메타버스와 NFT가 바꾸는 미래 ▲국내외 최신 미래교육 트렌드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래교육의 구체적 역량 키우기 ▲국영수 주요과목에서 시작하는 엄마표 미래교육 등을 주제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와 만난다.

그 외에도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학교', 5월 가족과 함께

하는 교육', 매일 도내 각 지역을 순회하는 '놀이밥0+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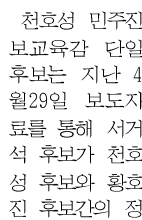
각 프로그램별로 2주전부터 전북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http://parents.je.go.kr/main/main.j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다양한 학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참여를 통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천호성 후보 "정책연대는 진보적인 선거 혁신"

서거석 후보가 다른 후보들간 정책연대 아랍 비난 적반하장 격

청렴도셀프수상·MB집사김백준 로비·동료교수폭행 등 해명해야



천호성 민주당 보교육감 단일 후보는 지난 4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거석 후보가 천호성 후보와 황호진 후보간의 정책연대를 '아랍'이라고 규정하고, 또 방송토론회를 '짜고 친다'고 비난한 데 대해 교육감 후보로서 선을 넘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방송토론회에서 제기했던 청렴도 셀프수상, MB집사 김백준 로비, 동료교수 폭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도민들에게 해명부터 하고 교육감 자격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호성 후보와 황호진 후보는 지난 4월 28일 '공동정책실천약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기초학력 책임제(지일체제구축) ▲특별직·상시직 교육협력기구 설치 ▲공립대안학교 확대와 전북형 1년 전환학교 설립 등 4가지 공동정책에 합의하고 협약문에 서명했다. 또한 합의한 공동정책

을 선거운동을 통해 함께 알리고 누가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실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 후보는 "서거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랍'이라고 비난했으며, 또한 4월 28일 실시된 kbs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천호성 후보와 황호진 후보가 자신에게 질문을 계속하자 이를 끼고치는 토론회라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경쟁자이지만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이것은 꼭 실천하겠다고 함께 약속한 것은 진보적인 선거혁신"이라며 "국립대학 총장 로비, 동료교수 폭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각급 의혹에 입 꺾 달은 채 도민을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후보들 간 정책연대를 아랍이라고 규정하고 토론회를 짜고 친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천 후보는 "서거석 후보는 청렴도 셀프수상, MB집사 김백준 로비, 동료교수 폭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교육감 자격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도청, 교육취약 학생 위해 '맞손'

맞춤형 통합지원 지원 협력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이 교육취약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28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교육취약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교육청 및 교

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와 전북도청 및 시·군 드림스타트 사업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자치단체의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지역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지역별 2차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 및 지원과 중복지서비스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메리어트 호텔그룹,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 시동'

선발된 3·4학년 재학생, 메리어트 호텔 취업



(JUMP)에 선발된 3·4학년 학생에게 현직자의 직무 특장, 멘토링, 현장실습, 인턴십, 개인프로젝트 등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메리어트 호텔 그룹에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전주대에서 자기소개서와 1차 면접을 통해 추천받은 교육 후

보 학생을 대상으로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메리어트 호텔그룹 임직원 이 교육생 선발 면접에 참여해 30여 명을 선발했다.

행사의 특별강연자인 메리어트 수원 이동현 총지배인은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우수 인재가 맞춤형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메리어트 호텔 그룹을 잘 이해하고 좋은 인력으로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국 학장은 "전주대의 현장 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80% 영어 수업 진행, 고객 중심의 인성 교육 등의 성과로 인해 국내외 호텔에서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출신자들의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다"며, "전주대가 글로벌 호텔그룹인 메리어트와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어린이날 행사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코로나9로 중단됐던 '어린이날 행사'를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학 캠퍼스 일원에서 진행한다.

이에 따르면 전주교대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풍성한 콘텐츠와 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했다.

올해는 마스크 스트랩&뿔찌 만들기,

학습기술상상경사 및 상담, 친환경 화분 만들기, 아기사방·뽕지치기·공기놀이 등 놀이 체험, 수채화 타투 스티커 만들기, 왓지질책 체육활동 한마당, EV3 로봇 축구대회 등 15개 프로그램을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 본부는 어린이날 행사 당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정은성 기자